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홍수 대비를 위한 숲, 담양 관방제림

이맘때의 계절일 것이다. 중학생 시절 학원에서 수업을 들던 중 선생님이 급히 다가와 말씀하셨다. "소영아, 네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지금 빨리 집으로 오라셔."

동네에 이르자 집 앞 하천에 물이 넘칠 듯 말 듯 흐르고 있었다. 부모님은 집에 온 나를 보더니 이대로 비가 계속 내리다가는 하천이 넘쳐 홍수가 날 것 같으니 얼른 방바닥에 있는 짐들을 최대한 위에 올려 두고 중요한 짐을 챙겨 차에 타라고 하셨다.

우리 집에는 물이 찻을 뿐이지만, 동네 이웃 중에는 집을 잃은 가족도, 사업장을 닫은 이도 있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자연 아래 인간은 너무나 취약한 존재란 것을 나는 너무나

빨리 깨달아 버렸다.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학회를 마치고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을 돌아보던 중, 커다란 나무가 줄지어 있는 산책로를 마주쳤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곳에는 푸조나무와 느티나무, 팽나무, 뽕나무 종류 등이 서있었다.

나무는 뿌리로 빗물을 흡수하고 땅을 지탱해 산사태를 막아준다. 1648년 마을 사람들이 매년 홍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 부사 성이성은 이곳에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 성이성 부사는 '춘향전' 이몽룡의 실제 모델로 추측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관방제림을 산책하며 단연 내 눈에 띄는 것은 개체수가 가장 많아 보이는 푸조나무였다. 푸조나무는 내가 사는 중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난대수종이다. 이들은 내공해성이 약해 도시에서는 잘 볼 수 없기에 우리에게 비교적 낯설지만, 강한 바람에 잘 견뎌 해안 방풍림으로 자주 이용되는 자생 식물이다.

조성 당시 700여 그루가 심어졌지만 지금 개체수

는 그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방제림을 걸으며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 제방과 숲을 만든 성이성의 마음과 숲을 가꾸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들을 떠올렸고, 그리고 나니 이 산책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다.

지금 우리에게 나무를 심을 이유가 더없이 많다.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지면 온도 상승, 공기 오염과 물 부족 등등..... 그러나 있던 나무도 베어 내고 그곳에 빌딩을 짓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다.

우리는 나무가 자라는 시간을 기다릴 줄도 모른다. 나무란 오늘 목목을 심는다고 당장 내년에 거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내가 당장 생색낼 수 없는 일이 될까 시작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식물과 관련된 정책이 잘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숲은 현재 사람들이 즐겨 지나는 산책로가 되었지만, 백성을 위한 성이성의 진심은 변화없이 관방제림을 오가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식물 세밀화>

의료칼럼

부정 교합이 많아진 이유



임성훈 조선대 교정학교실 교수

정상적인 발육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정상보다 더 많이 씹는 경우에는 턱의 크기가 커지기보다는 단지 근육과 뼈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인류의 경우 원시인보다 턱이 작아져도 생존에 불리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턱이 작아지는 쪽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턱에 비해 치아가 커서 덧니가 생긴 경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최근 들어 입천장에 작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턱을 좌우로 넓히는 교정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다. 이에 따라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늘어났다.

원시인의 화석에서는 앞니가 유인원과 비슷하게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돌출되어 있다. 작은 턱에 큰 치아를 배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처럼 앞니를 앞으로

기울여 돌출시키는 것이지만, 이 경우 입술도 원시인처럼 돌출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치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치아 옆면의 법랑질을 조금씩 갈아낼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대개 워터, 아래턱 각각 3-4mm 정도여서, 경미한 덧니가 있는 경우에만 적합하다.

작은 어금니를 상하좌우 하나씩 총 네 개를 빼서 덧니를 배열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드리면 많은 보호자들께서 이를 빼지 않고 치료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신다. 법랑질을 갈아내거나 어금니를 뒤로 미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뮬레이션했을 때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치아를 빼서 교정 치료를 하는 방법이 턱뼈와 치아 크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경우가 많으며, 심미적인 입술 형태를 만들면서 치료 결과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턱뼈가 빠졌던 치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경우에만 이를 빼지 않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고

들불 야학이 들려주는 이야기



정희석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원

성원들은 단결된 조직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희생 정신과 신념, 의지를 모두 갖춘 인격체들이 어떻게 들불 야학에는 화소분처럼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 5·18을 43번이나 마주하였지만, 이처럼 한 발 더 들어간 질문을 던졌던 적은 별로 없었다.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교육 공간으로서의 들불 야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자존감은 어떤 집단 또는 공동체 안에서 경쟁을 통해 타인을 누르고 올라섰을 때 얻어지는 자존심의 상승과 성취감의 충만으로부터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공교육 현장은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발생시킨다. 소수의 승리자라도 소속 집단이 바뀌면 언제든 다수의 패배자에 속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자존감의 고양은 거의 불가능하며, 개인의 행복을 위한 기반은 공명불이 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자존감이 없으니 타인의 자존감을 무시하는 경향은 전반적으로 퍼져, 학교 폭력과 왕따 문화가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바로 이런 혼돈의 연쇄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우리는 들불을 한 발 더 깊게 들여 봐야 된다. 들불 야학이 선명하고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불에서는 일상적인 상호 인정이 존재했다. 강학도

학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학생들도 토론의 과정에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고, 다른 학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서로가 눈빛을 확인하고 동일한 양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가면서, 구성원 모두가 성공 체험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어, 개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은 고양되어 갔다.

이런 경험이 어떻게 최고 성적 최고 학부 달성으로 얻게 되는 소수의 허망한 자신감 따위와 비교가 되겠는가! 누군가 우뚝 서야만 빛이 나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니 서로가 비슷한 목표, 목적을 두고 협력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자존감의 고양으로 직결되었다. 서로를 인정하는 인정의 일상화로부터 이어지는 자존감의 고양은 개인의 존엄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곧바로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발전한다.

오늘의 우리 교육 현장(가정을 포함하여)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이러한 일상적인 상호 인정이라고 생각한다. 들불 야학은 일상적 상호 인정이 인간 존중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런 과정을 보여주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갖게 되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 기획전 '들불의 기록, 생동의 공간으로'를 둘러보며, 들불 야학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社說

전 광주시장 아들 땅 용도 변경 '카르텔' 있나

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가 소유한 소촌농공단지 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제조 시설(공장) 용지 소유자인 전직 광주시장 아들 A씨는 2021년 12월 4500㎡의 부지에 스마트 정지로 바뀌달라고 광산구에 용도 변경 청서를 접수했다. 한때 광산구는 광주시에 '산단 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마저 누락했다.

광주시의 정시영 시장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산단 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마저 누락했다. 산입업법 시행령상 중대한 변경 사유에 해당돼 개발·관리 기본·실시 계획을 거쳐야 하는 데도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촌농단지 총 면적은 32만 4000㎡로, 지원 시설 면적이 최대 6.3%를 초과해선 안 된다.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9년 이미 6.2%에 달해 추가 용도 변경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광산구는 4500㎡를 추가 승인, 지원 시설 구성비가 7.6%로 뒤흔었다.

여기에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명단이 외부에 유출돼 심의 위원 전원이 교체되는 등 우려곡절 끝에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기도 했다. 용도 변경 이후 해당 토지의 감정가는 41억 5000만 원으로 뛰어 땅값 상승분이 22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용도 변경 과정에 정치권과 토호 세력의 카르텔이 의심된다'며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광산구의회에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주문했다. 증폭되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용도 변경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사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용도 변경 절차 자체가 잘못된 만큼 광주시 산단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과와 광산구의 최종 승인·고시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강제동원 공탁 제도, 정부 피해자 의사 존중해야

공탁을 통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차 대우변제안'을 처리하려면 정부의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곡떡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공탁관이 제3차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 측이 정부의 대우 변제안에 반대하는 명시적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민법 제469조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공탁관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강제 동원 가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

들에게 대법원의 손해 배상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양 할머니 등 최후의 네 명을 상대로 법원에 공탁을 함으로써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다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됐다. 어제 전주지법도 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제출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의 경우 공탁관이 재단의 이의 신청까지 거부한 터라 결국 판사가 공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어찌됐건 이번 공탁 파문을 통해 정부의 강제 동원 대우 변제안이 얼마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인지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도 정부에 공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강제 동원 문제를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강제 동원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행정 기관은 국민과 주민, 시민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예산 등을 집행하고 있다. 행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 즉 관료들은 언뜻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를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인사권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반면 관료들은 퇴직까지 오랜 기간 조직 내에 머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시 '영혼 없이' 복직부동의 자세로 버티는 경우도, 하는 척만 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 직선제, 민선 자치가 시행된 뒤 제대로 된 인사권자라면

전문가의 책무

취임과 동시에 혁신을 강조한다. 주권자에게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관료 중심의 시스템은 관행·관례에 익숙하며, 집행 기관이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갑의 지위를 누리게 한다.

이들 바꾸기 위해 인사권자는 치밀한 전략, 관련 지식,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을 두루 갖춰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채용하는 이유는 관료 조직에 자극을 주고, 전문 지식을 행정 시스템에 접목시켜 공공의 이익 증진,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괄 건축가 제도 역시 이러한 이유로 유럽, 일본에서 시작돼 서울·광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광주의 총괄 건축가가 전일·일신방직 부지 29만 6340㎡에 아파트 4186세대, 49층 높이의 특급호텔 등이 들어서는 국제 설계 공모를 주도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46만 5168㎡의 상무2지구에 2459세대가 공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면적은 63.7%에 불과한데 아파트 공급량은 1.7배에 이르는

'아파트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개발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업 지역에 대한 고밀 개발을 허가하는 것은, 수준 높은 디자인만 강조하고 있다. 대형 소품물 이야기는 은데칸데없이 또다시 맥락 없는 고층 고가 아파트 단지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의 자산'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공공이 우려야 할 공간이 누군가의 부추적을 위해 사라진다. 도시 공간의 공공성 증진과 시민 모두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 총괄 건축가는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가.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